

광주 복합쇼핑몰 기대·우려 교차…“낙수효과”vs“상권 붕괴”

광주시 연구용역 최종보고…생산유발 10조·취업 5만7천명 ‘장밋빛 전망’ 더현대·신세계·스타필드, 상권 활력 긍정 평가…상인들 “탁상행정” 불신

광주의 최대 현안인 ‘복합쇼핑몰 3각 벨트’(더현대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그랜드 스타필드)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한 연구용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입점이 10조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내며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정작 당사자인 상인들은 “현장을 모르는 통계의 함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상생안 마련에 진통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15일 시장에서 ‘상권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확장,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순차적으로 들어선다는 가정하에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상권은 위기 상황이다. 광주시민의 30%가 타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등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에서 광주시로 유입되는 소비는 20% 수준에 그쳐 내수 상권의 한계가 뚜렷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이 ‘외부 수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석 결과, 3대 복합쇼핑몰 시설 투자비만 총 5조 4403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건설 기간 생산유발효과는 10조 717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 5318억 원으로 추산됐다.

취업 유발 효과 또한 5만 7123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점포 운영이 본격화되면 연간 매출액 발생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도 연 5조 72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심형 점포인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백화점’은 반경 3km 이내 핵심 상권에 강력한 ‘집객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됐다. 쇼핑몰을 찾은 고객이 인근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하는 ‘낙수 효과’로 인해 주변 상권 매출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더현대 광주’ 출점 시 인근 슈퍼마켓과 음식점, 의류 업종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화장품 업종 등 일부는 경쟁 심화로 매출 감소가 우려됐다.

외곽형 점포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성격이 달랐다. 쇼핑과 레저가 결합된 체류형 시설 특성상 이용객 65%가 타지역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

측됐다.

이는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긍정적이지만, 창고형 할인매장(트레이더스)이 함께 입점할 경우 반경 3km 내 동네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타지역 사례 분석에서도 스타필드 인근 슈퍼마켓 매출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광주형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핵심은 복합쇼핑몰의 구매 포인트를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광주운영공동체 포인트’(가칭) 도입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가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백화점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1대1 매칭 컨설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고회 현장에서 상인들은 “연구결과가 지나치게 낙관적 편향이고, 현장의 절반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경분 광주복합쇼핑몰 대책위원회장은 “과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때마다 골목 슈퍼마켓은 초토화됐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슈퍼마켓 매출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상인들이 제감하는 현실과는 정반대인 이 데이터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의 대표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 상인회 측은 “전통시장 상인회나 골목상권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번 설문조사나 인터뷰 요청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카드 매출 데이터 등 기계적인 수치에만 의존해 ‘탁상행정식’ 결론을 도출했다는 비판이다.

용역사 측은 “일부 통계의 과대평가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상인회가 요구하는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하겠다”면서 “카드 데이터와 타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했으며, 상권 간 경쟁보다는 외부 유입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대시민 공개토론회’와 ‘유동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구체적인 상생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카카오톡 친구탭 이번주 업데이트…이전으로 복구

카카오가 이번 주 중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을 개편 이전으로 복원한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번주 내에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반부터 이용자 상황에 맞게 실제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데이트가 실행되면 지난 9월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적용된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탭이 석 달 만에 친구목록으로 돌아가게 된다.

업데이트 후에는 격자형 피드를 선택 옵션으로 들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편 전 친구탭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친구탭 복원 외에도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도병학(500106-XXXXXX)
• 최후주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23
(함평읍)
피상속인 망 도병학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선사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5-단10545호로 신청하여 2025년 12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2월 16일

• 상속인: 도민선(820118-XXXXXX)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69-28,
212동 1304호(용곡동, 용곡마을세계
24엔리치타워아파트)
• 신고기간: 2025. 12. 16 ~ 2026. 2. 25.
• 채권신고처: 상속인 도민선의 주소

光州日報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광 266-1960 • 북광주 625-3761
• 북 구: • 신: 222-8171 • 망: 222-7658 • 오: 225-6001
• 북 구: • 풍: 433-1603 • 우: 433-1603

• 동 구: • 남: 673-6836 • 북: 651-1833 • 봉: 673-6836
• 동 구: • 풍: 222-8171 • 신: 222-8171

• 남 구: • 남: 673-5788 • 신: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남 구: • 풍: 376-7153 • 치: 376-6511 • 풍: 603-0311
• 서 구: • 남: 952-1687 • 월: 광 059-1920 • 첨: 973-2900
• 남: 955-0451 • 광: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계약문의

062.227-9600

40
1985 -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



총 40년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 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장문(왼쪽 네번째) 저장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처장과 사경(다섯 번째) 저장일보 보업그룹 저장성 국제커뮤니케이션센터 부주임, 류성호(오른쪽 네번째) 광주전남기자협회장 등이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를 찾아 최권일(다섯 번째) 광주일보 편집국장과 취재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中 저장성 주요 언론사와 뉴스 교류 업무협약

저장미디어그룹·저장일보 보업그룹, 본사 찾아 미디어 협력 논의
대표단 “호남대표 언론의 방대한 네트워크 바탕 교류 활성화 기대”

광주일보가 15일 중국 저장미디어그룹, 저장일보 보업그룹과 미디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저장미디어그룹과 저장일보 보업그룹 관계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를 찾아 뉴스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문 대표단에는 장문 저장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처장과 신도정아 저장성인민정부 신문판공실 부처장, 엽돈 저장TV 뉴스센터총재부부부부장(저장미디어그룹), 사경 저장일보 보업그룹 저장성 국제커뮤니케이션센터 부주임, 서금평 저장미디어그룹 국제채널뉴스 프로듀서, 조일성 조문천하 미디어그룹 기자 등이 포함됐다.

최권일 광주일보 편집국장과 엽돈 부부장, 사경 부주임 등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대 지역을 취재하기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고 공동 취재 결과물을 만드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저장성 대표단은 1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광주일보와 KBS광주방송총국, 광주전남기자협회를 찾아 미디어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사경 부주임은 “1952년 창간한 호남 대표 언론 광주일보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미디어 채널 강점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의 소식, 문화·사회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남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장성을 지역에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인구 6600만명이 넘는 중국 남동해안 저장성은 전남도와 30년 가까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 절강성(저장성) 신문언론협회에는 200여 회원사, 2만명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저장일보 보업그룹의 저장국제커뮤니케이션센터(ZICC)는 국제 미디어 기관으로, TV 채널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지역에 송출되며 500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8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저장성에 본부를 둔 센터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기관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문화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절대평가 수능 영어 나이도 조절 실패…교육부 조사 착수

교육부는 15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의 나이도 조절 실패와 관련,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인데도 난도가 높아 부담이 커다란 우려의 목소리를 교육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를 통해 안정적 나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어 영역에서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면서 생각했던 것만큼 등급이 나오지 않았거나 상대평가보다 오히려 절대평가 1등급 비율이 4% 이내로 줄어든 것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교육부가 수능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느냐는 질문에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